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로
강건한 다음 세대를 세우라!



■ 기획 특집 ■ 파이디온 칼럼 ■ 다음 세대 사역자들과 나누는 공감 지대 ■ 가정의 달 특집
■ 책 이야기 ■ 사역 후기_ 다음 세대 설교 세미나 ■ 생생한 선교지 이야기

기획 특집

하나님이 꿈꾸시는 다음 세대

I. 들어가며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를 사랑한다. 할 수만 있으면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해주고 싶고, 내가 받을 복까지도 다 자녀에게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다. “여자는 약해도 어머니는 강하다”라는 말을 굳이 하지 않아도,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희생적인 사랑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언제 어디서나 진실이다.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지극한 사랑의 이유는 창세기 3장에 언급된 “네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16절)라는 구절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런 까닭에 성경은 자녀를 낳는 여인으로 교회를 묘사한다(계 12:1-2, 17절). 종교개혁자 칼뱅(John Calvin)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로 섬겨야 한다”라고 말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그렇다면 ‘어머니로 묘사된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본질적인 질문이 떠오른다. 교회는 세상에서 구원받은 성도를 말한다. 그리고 교회의 자녀는 바로 초신자와 다음 세대이다. 따라서 건강한 교회라면 초신자들(제자를 삼아)과 다음 세대(가르쳐 지키게 하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교회에 주신 지상대명령(Great Commission)이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가르쳐 지키게 하라”(마 28:18-20). 이제 사랑의 대상인 다음 세대에게 어머니인 교회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II. 다음 세대를 향한 꿈

1. 가족공동체 안에서 다음 세대를 향한 꿈

그렇다면 어떻게 다음 세대를 양육해야 할까? 먼저 가족공동체에서 하나님이 어머니에게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라고 하시는지 살펴보자.

“자녀들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엡 6:1-3).

성경은 자식이 잘되고 복받는 방법을 명확하게 알려준다. 첫 번째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부모는 아이들이 복받을 기회를 빼앗는 경우가 많다.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싶어도 부모가 자녀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지 않거나, 부모가 자녀들을 노엽게 하여 부모를 싫어하거나 증오하게 하는 경우이다.

“또 아버들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엡 6:4).

자녀를 복되게 양육하는 두 번째 방법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다. 많은 부모가 자녀가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의 필요를 다 채워주는 것이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갓난아이에게 각종 영양제를 먹였다가는 큰 화를 자초할 수밖에 없다. 자녀를 양육할 때에는 정확한 기준과 지침이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성경이다. 하나님은 가족공동체 안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기를 바라신다. 그리고 특별히 이 일을 위해 어머니를 부르셨다.¹⁾

2. 신앙공동체 안에서 다음 세대를 향한 꿈

가족공동체 안에서 다음 세대를 향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살펴 보았다면 이제 신앙공동체 안에서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살펴 보기로 하자. 이것을 알면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행 2:17).

하나님은 신앙공동체 안에서 다음 세대가 ‘예언하기를’ 소망하신다. 하지만 부모들은 이 말씀에 그리 큰 흥미를 갖지 않는다. 대부분의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이 꿈꾸시는 다음 세대에 대한 예언의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다. 하나님은 성령을 받으면 다른 좋은 것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예언’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선물로 준다고 말씀하신 것일까?

3. 예언이란 무엇인가?

예언에 대한 가장 흔한 이해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점치는 것’이다. 한국교회에도 ‘예언 기도’라는 개념으로 용한(?) 권사님이나 목회자에게 점치는 기도를 받는 일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성경도 예언을 ‘점치는 것’ 정도로 설명할까? 성령이 임하시면 자녀들이 하게 된다는 예언은 도대체 무엇일까?

첫째,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세대에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단어나 의미가 처음 사용된 곳을 찾아보는 것이 좋다. 한 예로 구약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된 곳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릴 때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라고 표현한 부분이다(창 22:2).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에서 나온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마 3:17).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무게감을 느낄 수 있는 말씀들이다.

‘예언’의 경우,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예언자를 살펴봐야 한다. 성경의 최초의 예언자(선지자)는 사무엘이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면서 최초의 선지자였다. 모세와 사시들도 선지자로 일컬을 수 있지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된 자는 사무엘이 처음이었다(삼상 3:20).



파이디온 칼럼

역경과 기회는 함께 온다

마태복음 26장에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지내신 마지막 이틀이 기록되어 있다. 한 장에 담긴 이야기가 많고, 아주 간박하게 상황이 진행된다. 특히 각 사람이 선택하는 기회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그 기회에 대한 반응은 그가 무엇을 사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지를 보여주었다.

예수님은 홀로 담당하실 고난을 선택하신다. 그분에게는 모두에게 버림받고 외로운 그 고난을 피하실 수 있는 기회도 있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구속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죽일 기회를 찾는다. 이름 없는 마리아는 그리스도께 대한 자신의 헌신과 드림의 마음을 표시할 기회를 잡는다. 하지만 마리아를 비난한 가롯 유다는 그것을 예수님을 파는 기회로 활용한다.

가장 아쉽고 안타까운 사람은 베드로이다. 그는 가장 위대한 주님의 제자가 될 기회를 잃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겸손하게 숙고하고, 담대한 심령을 가져야 할 순간에 교만하게 호언장담하여 스스로 곤혹스럽게 되었다(26:33). 그는 주님의 경고 대신 자신을 믿었고(26:35), 기도로 자신을 세워야 하는 순간에 잠을 잤다(26:36-46). 주님이 알려주셨음에도 자신의 생각으로 막아섰으며(26:51-54), 담대해야 할 순간에 자신을 속였다(26:69-75). 베드로에게 주어졌던 기회는 이처럼 자기 자신으로 인해 사라졌다.

예수님과 마리아에게는 역경이 곧 기회였지만, 베드로에게는 기회가 역경이 되었다. 이들에게는 공통적으로 역경과 기회가 함께 찾아왔다. 하지만 누구에게는 역경이 기회가 되고 기회가 역경이 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베드로의 관심은 '자기 자신'이었다. 그는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안전함과 피곤함을 앞세웠다. 반면 예수님과 가난한 마리아의 관심은 하나님이 높아지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예수님은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26:39)라고 말씀하셨다.

우리에게 찾아온 역경이 기회가 되려면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구해야 한다. 그럴 때 우리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고, 우리 앞에 닥친 역경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

지금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에 있어 절체절명의 기회이다. 사역이 곤경에 빠졌고, 어려움이 찾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잊지 말자. 주님의 뜻을 구하는 진심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역경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을 주님이 기회로 사용하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은 물질이 아니라 기회이다.
우리가 역경이라고 부르는 것을 하나님은 기회라 부르신다.”**

God's best gifts are not things but opportunities.
What we call adversity, God calls opportunity.

—워렌 위어스비(Warren Wiersbe)

고종율 목사
파이디온선교회 대표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무엘을 최초의 선지자로 여긴다.²⁾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실 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삼상 3:1).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선택하신 시대적 상황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때였다. 그 결과 백성은 어디로 갈지 몰라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삿 21:25).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기 위해 최초의 선지자 사무엘이 부름을 받은 것이다.³⁾ 예언은 미래의 일을 점치는 마술이나 술법이 아닌, 말씀이 희귀한 세상에 말씀을 알려주는 것이다.

둘째,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백성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구약 선지자들의 제일 중요한 사역은 말씀이 없는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는 것이었다. 동시에 또 하나의 중요한 사역은 이미 선포된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악의 길로 가는 백성과 지도자들을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이었다. 이것이 예언의 두 번째 의미다. 예언은 죄악의 길로 가는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시매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대하 24:19).

오늘날 교회는 이미 두 가지의 예언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복음을 듣지 못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복음을 알고 있음에도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 교회에서 예언에 대한 점치는 것 이상의 큰 오해는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⁴⁾ 역시 예언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다.



셋째, 예언은 교회(성도)를 세우는 것이다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역이다. 이것은 다시 예수님의 지상명령과 연결된다. 신약교회에서 예언은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가르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교회의 본질적 사역으로써,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는 은사로 예언을 주셨다. 더불어 많은 은사 중에서 무엇보다 예언의 은사를 사모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고전 14:1, 39절).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교회에서 예언의 은사는 점치는 것으로 잘못 이해되었다. 성경은 예언의 은사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려준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고전 14:3).

예언의 은사는 신앙생활을 하다 넘어진 자, 쓰러진 자, 지친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섬겨 아름다운 교회의 한 구성원으로 세워가는 사역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말한 것이다.

4. 예언은 정확한 정보에서 나온다

미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신비한 능력으로 미래를 본다는 부류이다. 점쟁이, 무당, 신접한 자, 사이버들이다. 성경은 이들을 용납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명령한다(신 18:10-11). 왜냐하면 정확한 근거가 없는 미신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소위 전문가이다. 사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예언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한다. 가장 많이 접하는 것 중 하나가 날씨에 대한 예언이다. 지난 50여 년의 기상 데이터를 가지고 현재 구름의 양과 바람의 속도 등을 평가할 때 나오는 예언, 이것을 일기 예보라고 한다. 이 기상학자들은 어깨가 쑤신다거나 무릎이 아픈 것으로 예보를 하지 않는다.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이야기한다. 또는 수년 동안의 주가 동향과 기업의 상황 데이터를 바탕으로 경제 방향을 예측하는 경제 전문가도 여기에 속한다. 이 사람들 역시 꿈 이야기나 느낌으로 경제를 예측하지 않는다. 이들의 예측이 100퍼센트 맞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신뢰할 만하다. 왜냐하면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예언을 해야 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필요한 정확한 정보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성경’이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딤후 3:16-17).

역사 속에서 교회는 늘 변함없이 다음 세대에게 말씀으로 분명한 기준을 제시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교육 방법까지 알려주었다. “성경으로 하라”, 즉 ‘성경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이다. 믿음의 선배들이 해왔던 것처럼, 읽고, 쓰고, 외우고, 실천하는 연습이 다음 세대를 위한 최선의 교육 방법이다. 어머니로서의 교회가 예언하는 자녀를 기르려면 성경을 분명한 삶의 기준으로 삼게 해야 한다. 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며 내린 결론은, 성경에 대한 정보는 주일학교 시절에 거의 완성된다는 것이다. 이때를 놓치면 엄청난 손실을 자초하게 된다.



5. 예언하는 자가 세상을 이끌어간다

예언을 하면 여러 유익이 따른다. 첫째가 평안이다. 미래를 알지 못하는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진다. 성경이 우리의 삶에 대한 분명한 정보를 제시하기 때문이다. 불안과 두려움을 완전히 벗어던질 수는 없을지라도 내적 평강을 맛보게 된다(요 14:27, 16:33).

둘째, 예언은 힘을 제공한다.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담대하게 말할 수 있다.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알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 있다. 고난의 유익을 알기 때문에 시련을 만나도 담대할 수 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결국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다. 내가 지금 실패하고 죄의 수렁에 빠졌을지라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다시 힘을 내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가장 큰 유익은 예언하는 자가 세상을 이끌어간다는 것이다.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열두 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낸다. 그들은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온다. 그들의 정탐 내용은 참으로 암담했다. 가나안 땅에는 철기를 가진 일곱 족속이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기다린다는 것이다. 아낙 자손은 거인이고 그들은 메뚜기 같았다. 그들의 정보는 99퍼센트 맞았지만, 1퍼센트가 틀렸다. 그 1퍼센트의 정보를 제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다. 그들이 가진 정보는 하나님이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다고 하신 약속이었다(민 13:8-9). 다른 열 명은 하나님이 주신 정보를 잊어버린 것이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정보를 기억했다. 그리고 40년 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의 선두에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으로 예언한 여호수아와 갈렙이 서게 되었다.

III. 글을 맺으며

	가족공동체	신앙공동체
아버지 (하나님)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것	자녀들이 예언하는 것
어머니 (교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	성경으로 정확한 정보 제공

자녀들이 성공하고 복받길 원하는 부모라면,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한다. 동일하게 신앙공동체인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향해 갖고 계신 꿈인 '예언하는 자녀'를 실현하기 위해 말씀을 잘 가르쳐야 한다.

시대가 발달하면서 교육에 있어 다양한 방법론과 인간 발달에 따른 참신한 접근법들이 등장했다. 이러한 시도들은 매우 가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성경을 등한시해서는 결코 안 된다.⁵⁾ 하나님은 분명한 울타리를 제시하시고 그 안에서 창조적이고 자유롭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나가는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신다. 자녀 교육에 왕도가 없듯이, 신앙공동체나 다음 세대 교육에도 왕도란 없다. 단지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향해 말씀을 근거로 예언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심을 알고, 그 방향을 향해 충성스럽게 달려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주실 것이다. 상황은 바뀌어도 진리는 바뀌지 않는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벧전 1:24-25).

김창현 목사

-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
- 사우스웨스턴 신학교(기독교교육/ 교회행정 전공)
- 인천 소풍교회 담임목사
- 저서 「자녀로 예언케 하라」(베다니 출판사)
- 「아무것도 하지 않는 영성」(예수전도단)



<참고 도서>

1. 래리 스티븐스, 「하나님 제 아이 정말 잘 키우고 싶어요」(요단 출판사), 49쪽.
2. 김창현, 「자녀로 예언케 하라」(베다니 출판사), 83쪽.
3. 헨리 블랙커비, *Chosen to be God's Prophet*(Thomas Nelson Publishers, 2003), 20-22쪽.
4. 존 맥아더, 「분별력」(엔크리스토), 31쪽.
5. 아이리스 V. 컬리, 「성경과 기독교교육」(한국장로교출판사), 16-17쪽.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흔하지 않은



부활절 계란 포장

부활절을 위한 더 많은 아이디어!

파이디온스퀘어에 오시면
더욱 풍성한 부활절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와 아이디어를 만날 수 있습니다.

www.paidionsquare.com



부활의 기쁨을 노래하는
파이디온 어린이 CCM



부활의 메시지를 강화해주는
부활절 영상



예배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부활절 콘텐츠



포토존, 무대배경으로 활용하는
부활절 현수막



예수님의 부활을 목상하는
필독서

5월 가정의 달,
소중한 우리 아이에게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가르쳐주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는
파이디온스퀘어 가정의 달 절기 사역 자료

www.paidionsquare.com

다음 세대
사역자들과 나누는

공감시대

학령전 하나님 나라의 푸르른 나무를 키우기 위하여

겨우내 얼었던 땅에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기 위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밭을 가는 것입니다. 밭을 어떻게 가느냐는 그 해 농작물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 될 것입니다. 주일학교 전반의 과정을 농사에 비유한다면, 미취학 어린이 사역은 양질의 토양을 만드는 작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를 듣는 시기가 바로 이때이기 때문입니다.

시카고대학의 벤저민 블룸(Benjamin Bloom) 교수는 교육발달 심리적 관점에서, 한 사람의 인격은 1-8세 사이에 약 85퍼센트가 완성된다고 주장합니다. 유대인 랍비들은 “유치원생은 100퍼센트, 초등학생은 50퍼센트, 중고등학생은 10퍼센트, 대학생은 5퍼센트를 유대인으로 만들 수 있으나, 성인은 유대인으로 만들기까지의 불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말들은 미취학 시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얼마나 중요한 때인지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의 마음밭을 기경해야 합니다. 미취학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제가 늘 마음에 새기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삼십 배나 육십 배나 백 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막 4:8).

우리가 만나는 아이들의 마음밭이 영양분으로 가득한 좋은 땅이 될 때, 그 안에 심겨진 복음의 씨앗이 삼십 배, 육십 배, 백 배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섬기는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밭 뒤집기

어린이의 천진난만한 모습과 밝은 미소, 초롱초롱한 눈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봅니다. 하지만 아이들과 함께하다보면 이와 상반된, 죄로 인해 얼룩지고 어그러진 모습도 보게 됩니다. 어린이라 해도 죄로 인해 어그러지고 깨진 부분이 있습니다. 딱딱하게 굳어진 아이들의 마음을 뒤집어야 합니다. 딱딱한 땅을 쟁기나 곡괭이로 깊숙하게 파서 뒤집듯, 죄로 인해 딱딱해진 영혼을 말씀의 쟁기와 복음의 곡괭이로 뒤집어야 합니다. 뒤집어진 흩에 공기가 적당하게 들어가면 좋은 미생물(호기성 세균)을 통해 나쁜 세균의 번식이 억제되듯,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뒤집힌 어린이들의 마음밭에 성령의 공기가 들어가면 좋은 것들이 자라납니다.

자갈과 잡초 제거하기

쟁기와 곡괭이로 땅을 뒤집어엿었다면, 이제는 호미를 손에 쥐고 자갈과 잡초를 제거해야 합니다. 씨앗이 자라는 데 방해가 되는 자갈들을 제거하고, 잡초가 다시금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뽑아서 멀리 던져버려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사는 이 세상에는 수많은 가치관과 세계관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호미를 들고 끊임없는 관심으로 아이들을 돌보아야 합니다. 아이들은 성향과 자질, 능력과 관계없이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성향과 자질, 능력에 따라 판단하고, 남과 비교하여 우열을 가리는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도록 이끌어주어야 합니다. 아이들을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지 못하게 하는 돌맹이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거름 주기

굳었던 땅을 쟁기와 곡괭이로 깊숙이 파서 뒤집어엿고, 호미로 돌맹이와 잡초들을 제거했다면 이제 흩에 기름진 거름을 주어야 합니다. 어린이들에게 주어야 할 거름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교사를 통해 듬뿍듬뿍 뿌려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아이들을 용납하고 사

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전달해야 합니다. 흩에 거름이 뿌려져서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고 잘 썩을 때 영양분 가득한 좋은 땅이 되듯, 교사가 아이들의 마음밭에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름을 듬뿍 주어야 합니다. 사랑 없는 외적인 프로그램과 화려한 도구들은 마치 화학비료 같습니다. 화학비료는 토양을 척박하게 하여 나무가 병충해에 취약해지게 합니다. 사랑이 없는 의무적인 교회 교육은 결국 병충해에 취약한 나무와 같은 어린이들을 양산할 뿐입니다. 교사들의 사랑과 헌신의 마음이 거름으로 썩어질 때, 풍성하고 푸르른 나무와 같은 어린이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블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 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고전 3:6-7).

지금 제 눈앞의 어린이들은 아직 작고 어리지만, 저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튼튼하고 우람한 큰 나무를 봅니다. 저는 그 소망으로 힘을 얻어 사역을 합니다. 우리의 사역은 밭을 일구고, 돌맹이와 잡초를 뽑으며 거름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실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만나는 이 아이들이 그리스도의 푸르른 나무가 되어 주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란 전도사

- 충신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
- 장대교회 교육전도사
- 파이디온선교회 티칭 강사





학령기 선명하고 올곧은 정체성으로 나아가는 다음 세대

사람은 어떤 사람, 사건, 환경에 의해 큰 변화를 겪습니다. 변화가 일어난 그 순간을 우리는 '터닝 포인트'(Turning Point)라고 말합니다.

저에게도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터닝 포인트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입니다. 두 번째 터닝 포인트는 스무 살에 파이디온, 양승헌 목사님 그리고 세대로교회를 만난 것입니다.

부산에서 태어난 저는 충신대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서 서울로 왔습니다. 그리고 4인 1실 기숙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떤 선배들을 만나게 될까 기대하며 들어간 그 방에는 세 명의 선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세 명 모두 파이디온 대학부 동아리의 구성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두 명은 세대로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후 저는 자연스럽게 파이디온 대학부 동아리에 들어가게 되었고, 세대로교회에서 양승헌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으며, 교회에 등록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에게는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저는 다음 세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지만, 이런 터닝 포인트를 통해 다음 세대에 대한 생각, 개념, 기대, 가치 등이 변화되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다음 세대를 어떠한 모습으로 세워야 할지 배우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음 세대의 모습에 대해 생각하고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고민은 저에게만 해당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또한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대하고 꿈꿔야 할 다음 세대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저는 두 가지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선명하고 올곧은 정체성을 가진 다음 세대

먼저 다음 세대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본질상 죄인인 우리의 죄 문제와 결과를 예수님이 어떻게 담당해주셨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다음 세대는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구원자 예수님, 내 마음속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제대로 믿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다음 세대는 물질적이고 외적인 것에서 행복을 찾지 않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서 행복을 누릴 것입니다. 이러한 정체성을 가진 다음 세대는 다음과 같은 독특한 삶의 양식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선명하고 올곧은 정체성을 지닌 다음 세대의 독특한 삶의 양식

선명하고 올곧은 정체성을 지닌 다음 세대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닮은 모습 속에 하늘 가족을 섬기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복음으로 온 세상을 축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보여주어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다음 세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웃을 세우며 세상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모습이 선명하고 올곧은 정체성을 지닌 다음 세대가 추구해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인도의 일곱 살 소년 아누그락 제메티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제 가슴에 아직도 먹먹하게 남아 있는 그 소년의 이야기는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생각하게 합니다.

이 소년은 독실한 크리스천 집안에서 태어나 부모로부터 귀한 신앙을 물려받았습니다. 담임목사가 그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적극적인 소년'으로 기억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어야 할 이 소년이 집에서 1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호수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얼굴은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훼손되었고, 배와 손 등의 신체 일부가 불에 탔습니다. 알고보니 이 일이 있기 전, 소년의 가족은 힌두교 극단주의자들에게서 끊임없는 살해 위협을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어린 소년에게 힌두교 극단주의자들이 고문을 하며 무슨 말을 했을까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하면 풀어주겠다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소년은 자신의 생명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맞바꾸었습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이 자신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분명하게 아는 선명하고 올곧은 정체성이 이 소년을 죽음 앞에서도 의연히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는 이 소년의 신앙을 본받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선명하고 올곧은 정체성 속에서 독특한 삶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음 세대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의 꿈이 주님 안에서 실현될 것입니다.

조영광 전도사

- 충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재학
- 세대로교회 유년부 및 어와나 지역 담당
- 파이디온선교회 티칭 강사





청소년 다음 세대 청소년들에게서 발견하는 소망과 꿈

인생의 활기와 아름다움이 가득한 청소년기는 변화 가능성이 가장 큰 시기입니다. 세상은 그들을 시한폭탄과 같은 부담스러운 존재로 여기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이 시대의 거룩한 그루터기로 남겨두셨습니다.

청소년들에게는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꿈의 사람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멋지게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주님의 사람으로 세우실 때, 말씀과 고난의 터널을 통해 성숙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터널 끝에는 분명 찬란한 빛이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날들이 모여 일생(一生)이 되고 그 일생으로 인생(人生)이 이루어지듯, 우리에게 허락된 삶의 날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멋지게 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의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도전해주시오.

“청소년들이여,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정면돌파하는 인생을 삽시다.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어진 현실을 도피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이 땅에서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시오! 또한 요셉처럼 속한 공동체에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을 섬기는 충성된 일꾼으로 우뚝 서기를 기대합니다.”

청소년들에게는 열정, 헌신, 감격이 있습니다

인생의 분명한 목적과 비전을 발견한 청소년들

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많은 청소년이 비전, 꿈, 진로에 대한 치열한 고민 끝에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막상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자신의 모난 부분을 다듬어가며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 안에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열정과 헌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한없이 감격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헌신을 도전하는 청소년들의 간절함을 저는 보았습니다. 수능을 앞둔 주일, 12년간의 초중고 시절을 보내며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고백을 드리는 수험생들의 모습은 세상의 거대한 물결 앞에 주저하고, 어찌할 바 모르는 어른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변화와 도전, 젊은 날 가장 귀한 시간을 주님께 드린 청소년들의 모습은 그들의 삶에 평생 남을 거룩한 흔적입니다.

청소년들에게는 공동체를 변화시킬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무너진 가정과 학교에서 청소년들의 변화는 놀라운 힘을 발휘합니다. 절대로 녹지 않을 것 같던 청소년들의 굳은 마음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앞에 녹아내릴 때, 그들은 가정과 학교 공동체의 변화를 강력하게 주도하는 변화의 주체가 됩니다. 그들은 함께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청소년으로 자라갑니다.

제가 아는 한 청소년의 부모님이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질풍노도의 시기에 그 청소년이 혹여나 방황하지 않을까 염려했습니다. 그러나 중등부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이 청소년은 그 어려운 시기에 어머니를 전도했습니다. 이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고 중등부 교사로 사역하기까지 아들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청소년이 어려운 상황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관심과 이슈인 이 땅의 청소년들! 모든 사람이 청소년기를 지나지만, 어른이 되면 우리의 부모 세대처럼 청소년을 이해하지 못하는 기성세대가 되기 쉽습니다. 꿈을 찾고, 자아정체성이 형성되며, 이성애 눈을 뜨고, 창조주를 향한 의문이 증폭될 때,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주어진다면 그들의 평생이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꿈의 사람 요셉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처럼,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다니엘처럼, 하나님은 청소년기에 주님께 헌신된 한 사람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 한 사람이 우후죽순(雨後竹筍) 일어나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존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김현웅 목사

•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
• 분당우리교회 중등부 담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신앙보다 스펙이 중요한 세상...
점점 감소하는 크리스천과 뜨뜻미지근한 복음 전도...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차가운 시선...

교회의 흥년기가 다가오고 있다!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문제를 해결할 '사람'을 키워야 할 때이다.

2014년, 교회의 흥년기를 대비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라!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으로서 목포도, 정체성도, 삶의 모습도 잃은 채 애굽의 생활에 젖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 부르고 계십니다. 척박한 환경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셨기에 가능했던 기적과 같은 40여 년의 광야 여행...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모세의 심정으로 그들을 인도할 다음 세대 사역자들을 2014 파이디온 여름 성경학교 강습회에 초대합니다.

	1과	2과	3과	4과
제목	하나님의 백성이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친구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요
읽을 말씀	출애굽기 19:1-6	출애굽기 20:1-17	출애굽기 25:8-9	출애굽기 40:34-38
외울 말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엡 1:5).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요일 5:3).	"너희를 중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좋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요 15:15).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 28:20).
포인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으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라!



+ 2014년 6월 2일부터 5차에 걸쳐 전국에서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가 진행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파이디온선교회 홈페이지 www.paidion.org를 확인하세요.

크리스천 청소년,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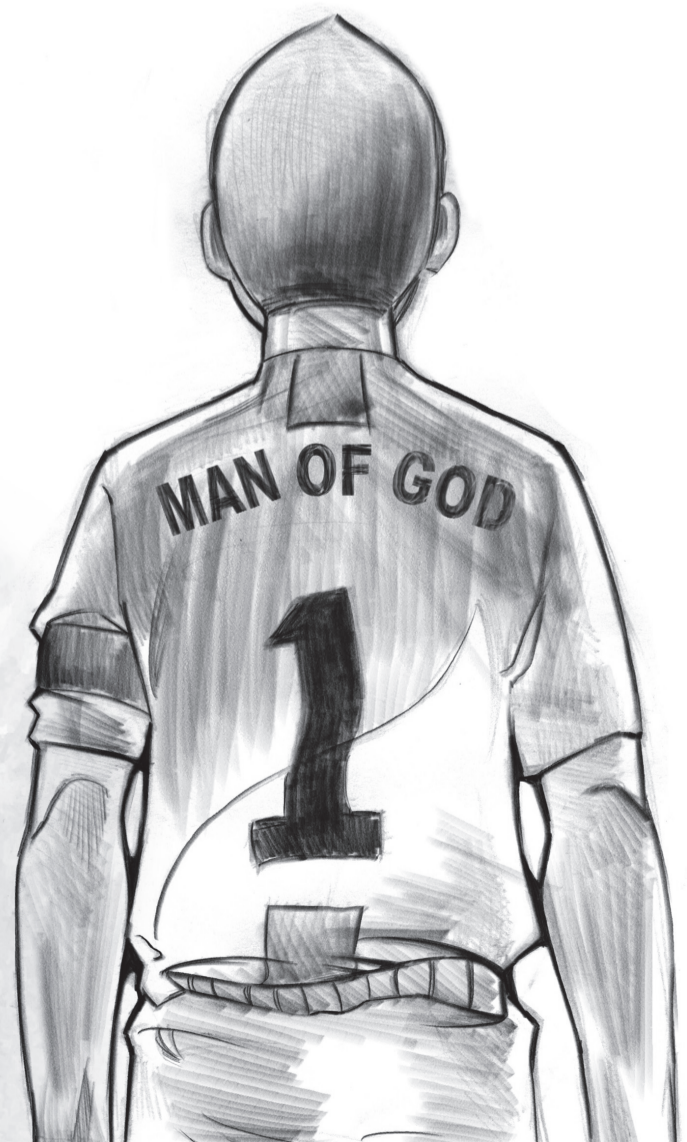
하나님을 경험하라
**Experiencing
[GOD]**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위험한 상황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속상하고 답답할 때 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무조건적으로 나를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뒤바꿀 구원의 하나님과의 만남!

치열한 경쟁 속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안고 사는 우리 청소년들이 길을 잃고 있습니다. 수많은 질문을 떠안은 채 삶에 대한 나름의 '답'을 찾고 있는 그들에게, '인생의 해답'이 되어주실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어야 합니다. 부모님의 하나님, 선생님의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2014 파이드온 청소년 캠프 교사 강습회**에 우리의 다음 세대와 청소년 사역자들을 초대합니다.

	1과	2과	3과
제목	By GOD 하나님의 백성 됨을 인식하라!	In GOD 하나님의 말씀을 표준 삼으라!	With GOD 하나님과 사귀기를 누리라!
성경 본문	출애굽기 19:1-6	출애굽기 20:1-17	출애굽기 33:7-11
중심 말씀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출 19:5-6).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출 20:1).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할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출 33:11).
포인트	하나님의 백성 됨을 인식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표준 삼으라!	하나님과 사귀기를 누리라!

+ 2014년 6월 2일부터 5차에 걸쳐 전국에서 청소년 캠프 교사 강습회가 진행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파이드온선교회 홈페이지 www.paidion.org를 확인하세요.





가정의 달 특집

오월엔 아이들과 신나는 바깥놀이를!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5월이 되면 아이들 입에서 하나둘씩 들리는 노래이다. 그러나 사역자들은 행사와 프로그램들을 계획하느라 고민하게 되는 시기가 바로 5월이다. 올해는 또 어떤 색다른 프로그램으로 좀 더 즐겁고, 좀 더 기억에 오래 남는 어린이 주일을 만들어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어느 사역자에게나 동일하게 있을 것이다.

새누리2교회 아이들은 5월이 되면 자연스럽게 밖으로 나간다. 아이들은 이 야외 예배를 ‘소풍’이라고 표현한다. 요즘 아이들은 밖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극히 드문데, 그런 아이들에게 꽃향기와 따뜻한 햇볕이 가득한 곳에서 예배드리게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살아 계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게 하는 축매제가 된다. 새누리2교회 유아부는 일 년에 두 번, 이렇게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밖으로 나간다. 꽃피는 봄과 낙엽 떨어지는 가을에 밖에서 예배를 드리는 경험은 실내 예배와는 다른 새로움이 있다.

예배는 모든 과정을 간소화하여 찬양과 설교로만 구성한다. 주제는 다양하게 잡을 수 있으나,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중심에 둘 때 아이들과 좀 더 흥미로운 야외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새누리2교회 근교에는 아이들 걸음으로 15분 정

도 걸으면 도착하는 잔디가 깔린 공원이 있다. 야외 예배를 기획하는 모든 사역자가 장소 문제로 고민할 것이다. 특별히 미취학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유아부나 유치부는 차로 이동하여 멀리 나갈 수 없다는 큰 한계점이 있다. 그러나 주위를 조금만 둘러보면 나갈 수 있는 곳이 얼마든지 있다. 의외로 야외 예배는 큰 조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햇볕이 좋은 곳, 나무 그늘이 있는 곳, 활동이 가능한 적절한 공간이 있는 곳 정도라면 얼마든지 아이들과 신나게 예배드릴 수 있다. 가까운 공원, 초등학교 운동장, 유치원 잔디밭 등을 고려해보라.

그러나 그날의 모든 프로그램을 예배로 진행할 수는 없다. 그것은 아이들에게도 그다지 흥미롭지 못하고, 준비하는 교사들에게도 큰 기쁨을 줄 수 없다. 그러나 지나치게 특별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질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 새누리2교회 유아부에서는 선물과 게임으로 특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평소에도 부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내용면에서는 그다지 특별하지 않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을 밖에서 진행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평소에 실내에서 할 수 없었던 게임들을 야외에서 진행할 수 있다. 맘껏 뛰어놀게 하는 것이 최고의 프로그램이라는 사실을 아이들의 표정과 몸짓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

이다. 맘껏 뛰는 후에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으로 대미를 장식한다. 요즘 아이들은 아토피 때문에 아이스크림을 먹기도 쉽지 않다. 그러나 그날만큼은 재정을 좀 사용하더라도 유기농 아이스크림을 사주도록 노력하자. 왜냐하면 그 하루는 아이들의 날이기 때문이다.

물론 야외 예배 외에도 인형극, 연극, 실내놀이, 오감놀이, 찬양대회 등 어린이 주일에 할 수 있는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다. 나 역시 여러 프로그램들을 시도해보았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기도 했다. 그러나 어떠한 프로그램도 자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뛰어넘지는 못했다. 올 봄, 5월의 어린이 주일에는 꽃이 만발한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에서 맘껏 뛰어노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한소연 전도사

- 침례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재학
- 새누리2교회 유아부 교육전도사
- 파이디온선교회 티칭 강사



더사랑의교회

친구 초청잔치를 소개합니다



청소년 사역은 그 특성상, 관계가 형성되고 그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것이 복음전도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교회에 초청되어서 재미를 느끼고 마음이 통하는 친구들을 발견하면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교회에 나오고 복음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기존의 친구 초청잔치가 대부분 단회적인 행사로 끝나기 쉬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교회를 찾은 새친구가 교회에 재미를 느끼고, 한 번은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주기 위해 고민하다가 만들어낸 것이 바로 런닝맨 친구 초청잔치이다.

런닝맨 친구 초청잔치의 목적은 초청된 새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새친구와 기존의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교회를 방문한 새친구가 최소한 다시 한 번 더 교회를 찾게 하는 데 있다.

아래의 지도에 표시된 세 개의 탐색(Quest) 지역에는 난이도가 다른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다. 어떤 지역으로 가서 미션을 수행할 것인지는 자유롭게 정한다. 멤버들 간의 팀워크, 체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아래 자발적으로 선택하게 하였다. 집결지를 정해주고 미션이 적힌 작전지를 수령하여 예배가 마친 후 함께 출발하였다.

지도 옆의 사진들에는 각 지역에서 수행해야 할 미션이 기록되어 있다. 산악지역인 레드 존

에서는 예비군 훈련시설을 이용하여 아이들이 재미있게 미션을 수행할 수 있게 하였다. 가장 난이도가 높은 지역으로, 여섯 개의 시설을 찾아내 미션을 수행해야 한다. 나머지 블루 존과 옐로우 존은 주변의 문화재나 특이한 구조물들을 이용하여 세 개씩 미션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중요한 것은 난이도를 다르게 하고 아이들의 경험과 성격의 차이에 따라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코스를 준비하여 기존 아이들뿐만 아니라 새친구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실제로 새친구들이 더 열심히 게임에 임한 경우도 여러 번 있었다.

새친구들의 참가를 독려하기 위한 장치도 필요하다. 일단 기존 아이들에게 기대감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친구를 데려 오고 싶기 때문이다. 전도에 대한 동기부여 설교를 꾸준히 하면서 이번 프로그램이 재미있고 유익할 것이라는 확신을 주면 아이들이 움직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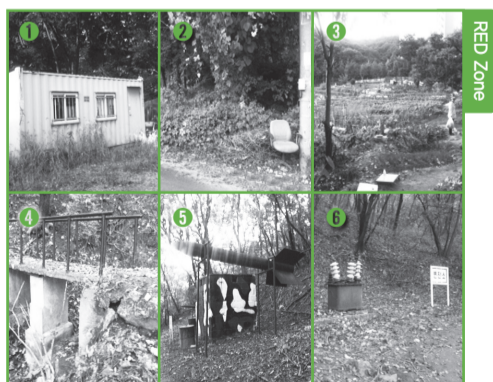
팀	기존 멤버 수	새친구 수
1		
2		
3		
4		

위의 표는 당일에 아이들이 받았던 작전지의 일부이다. 기존 멤버와 새친구를 나누어 적어서 출발할 때 제출하게 했다. 그리고 인원을 확인하고 생존 지원금을 지급하여 미션 수행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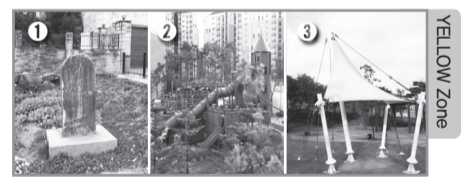
위해 가게 했다. 물론 새친구 수가 많을수록 지원금이 커지므로 중간에 슈퍼 등에서 맛있는 간식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모든 활동을 마치고 학교 운동장에 최종 집결하였다. 모여서 최종 인원을 점검하고 교회로 이동하여 함께 식탁교제를 했다.

보통 친구 초청잔치에서 선물이나 행운권 추첨을 많이 한다. 그런데 그것이 선물로는 의미가 있지만, 새친구들이 지속적으로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것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선물 비용을 회식비로 전환하여 지원하고, 한 번 더 식사를 위해 모일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았다. 그리고 당일 수행한 성적과 새친구 및 기존 아이들의 참여도 등을 기준으로 채점표를 만들어 교사들이 종합 집계하여 순위별로 회식비를 지원했다. 같이 뛰어다녔던 친구들이 다시 모이게 하여 교회에 한 번 더 발을 붙이도록 유도한 것이다. 첫 주에 참여했던 새친구의 대부분이 다음 주 회식 모임에 참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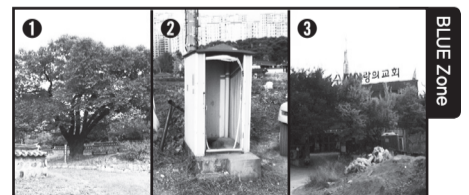
지금은 교회가 이전했지만, 예전에 교회가 있던 곳 주변에 산과 여러 문화재가 있어서 특성을 살려서 기획을 했다. 이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주변의 새로운 시설과 공원 등을 활용하여 재미있는 코스를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각자 교회의 주변 환경과 형편을 참고하여 재미있고 생동감 넘치는 친구 초청잔치를 기획해보자.



- ① 적군의 비밀 컨테이너/ 앞에서 단체 촬영/ 10점
- ② 비밀통로를 알리는 의자(진입로)/ 조장이 앉아서 사진/ 10점
- ③ 적들의 산속 비밀 식량 재배지/ 함께 농사짓는 사진 / 30점
- ④ 돌아올 수 없는 다리/ 함께 다리 위에서 점령의 포즈/ 30점
- ⑤ 적군의 미사일 기지/ 미사일 앞에서 폭발물 설치 장면 촬영/ 50점
- ⑥ (보너스) 적군의 전기 기지/ 앞에서 요한복음 3:16 암송 동영상/ 50점



- ① 정체불명의 비석/ 기념 촬영 후 이 비석의 의미를 알아내라/ 20점
- ② 적들의 특공 훈련장/ 이 시설을 이용하여 3장의 사진을 찍어라/ 30점
- ③ 적들의 작전지휘 천막/ 이 시설 앞에서 인간 피라미드를 만들어 촬영하라/ 5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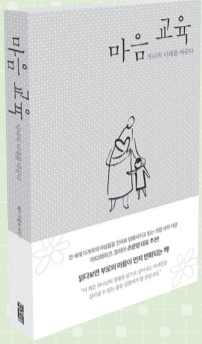
- ① 도원의 곁의 나무(경기 용인 25호 보호수)/ 함께 승리를 약속하는 장면 촬영/ 50점
- ② 적들의 화장실/ 동을 밟지 않기 위해 함께 힘껏 점프하여 촬영/ 30점
- ③ 아군의 지휘본부/ 함께 건물 전체가 나오도록 촬영하라/ 20점

이지함 목사

- 충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
- 더사랑의교회 고등부 및 미래준비 팀 담당
- 파이디온선교회 티칭 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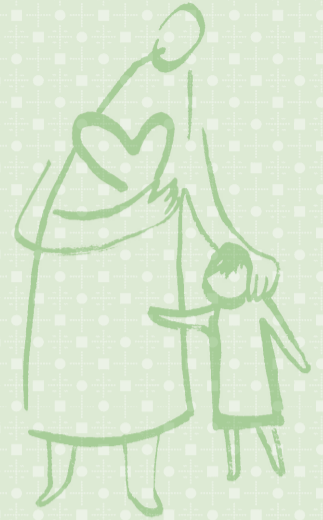
책 이야기



테드 트림 & 마지 트림
330쪽 | 도서출판 디모데

마음 교육

자녀의 미래를 바꾼다



2014년 3월은 제게 남다른 의미가 있는 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큰딸 소원이 초등학교에 입학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 처음 입학했을 때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이제 아기의 모습을 버리고 진짜 어린이가 된 것 같아 뿌듯한 마음과 함께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지, 친구들은 잘 사귈지, 선생님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여러 마음이 들어 절로 기도가 나왔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정말 크고 높게만 보일 초등학교에서 소원이가 즐겁고 신나게 잘 지냈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딸아이를 보며 어떻게 해야 아이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이런 저에게 신뜻한 표지의 「마음교육」이라는 책이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책은 제목 그대로 '마음'과 '교육'에 관한 특별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은 '마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마음은 인간 존재의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능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은 인격이 머무는 존재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마음에 성령이 내주하시는가, 아니면 사탄이 주권을 행사하는가에 따라 인생의 방향과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 자녀의 마음에 주목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마음교육의 핵심은 자녀의 행동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자녀가 올바르게 행동할 때나, 올바르게 행동하지 못할 때에도 이 원리는 동일합니다. 아이의 마음이 하나님의

진리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의 뜻과 권위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마음교육은 자녀들의 인격과 가치관을 '형성하고 빚어가는' 과정으로써,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바탕을 둔 평생에 걸친 상호작용입니다. 성경은 말씀을 의지하여 자녀들을 가르칠 때 그들의 삶에 열매가 맺힐 것이라고 약속합니다(잠 22:6).

세상은 진리가 아닌 거짓 유희와 강한 자극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공격하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의 영혼을 빼앗으려는 적에게 맞서 공격용 무기와 방어용 무기로 말씀을 능숙하게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마음교육은 삶의 준거틀로 삼을 성경의 원리와 진리를 자녀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마음에 성경적 가치를 바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진리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야말로 부모의 가장 높은 교육 목표일 것입니다.

「마음교육」의 부제는 '자녀의 미래를 바꾼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이 책을 통해 자녀의 미래를 바꿀 성경적 전략인 마음교육의 원리로 무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김대만 목사

• 중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
• 파이디온선교회 대외 협력 팀 팀장



Proclaim his beauty! Design Ministry **picok**

목상과 영감어린 작가의 이미지에 아이디어 넘치는 기획 디자인을 더합니다

Web
Mobile
App
Solution
Design
Imprint
Image Directing

www.picok.co.kr | 070-8683-3301

브로셔

주보

현수막

LOGO

수영로교회

액자

카드/전단지

포스터

안산동산교회

리플렛

달력

WEB

모바일

대구동산교회

사역 후기

‘종합 선물세트’ 같았던 다음 세대 설교 세미나



어릴 때 받았던 과자 종합 선물세트에 대한 기억이 아련합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손님의 손에 들려있던 꾸러미, 그것을 받아든 순간부터 선물세트 안의 모든 과자를 다 먹기까지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그리고 과자를 다 먹고 난 다음에도 그 선물세트가 담겨 있던 상자는 한동안 계속 보관했습니다.

2014년 1호 <비전트리>는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평소에는 쭉 읽어보고 말았지만 이번 호에는 저를 숨죽이게 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음 세대 설교 세미나’를 안내하는 지면이었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지금 되돌아보면 세미나를 기다렸던 시간, 합숙 훈련의 과정 등이 모두 종합 선물세트와 같았습니다.

세미나는 양승현 목사님의 이야기로 시작되었습니다. 42년을 한결같이 어린이 사역에 헌신하신 양 목사님께 어린이 설교의 중요성을 듣던 중, 저의 설교가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밤늦게까지 강의 내용 복습과 과제를 하면서 강당은 강의실 겸 숙소로 변했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이후에도 자료집을 탐독하며 다음 세대 설교 세미나를 곱씹고 있습니다. 세미나용 바인더와 「어린이설교 클리닉」(디모데)은 유익하고 새로운 내용을 더 많이 발견하게 해줍니다.

세미나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훈련생 한 명 한 명이 점점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본 것과, 저 자신의 변화에 대해 기대하며 용기를 갖게 된 것입니다. 멘토 목사님들은 많이 부족한 훈련생들의 설교에 대해서도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조언해주셨고, 세심하게 격려하시며 후배 설교자들을 건강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제가 설교의 각 과정별로 앞 강단에 나가서 실습 발표할 때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어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강의 시간에 배운 이론을 적용해서 준비했지만 막상 앞에서 자 아쉬운 것들이 드러났습니다. 설교 실습 시간은 각 단계에 따라 점차 3분, 7분, 12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제가 정한 본문으로 실습에 참여하면서 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더 큰 배움은 제 실습에 대한 피드백 과정이었습니다. 대표님과 팀장님 두 분이 훈련생들의 발표를 세심하게 파악, 분석하여 종합적인 피드백을 해주셨습니다. 피드백 과정을 통해 저의 부족한 부분들을 깨닫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습니다.

주의 집중과 문제제기, 해답암시와 진술 그리고 결론의 모든 과정에서 이론과 실습을 통해 파이디온의 소리굽쇠 설교 방식을 섭렵하게 되었습니다. 자칫 훈련생의 입장에서는 그 끝이 희미하게 보이는 설교 세미나일 수도 있습니다. ‘중심사상’, ‘포인트’, ‘소리굽쇠’ 등 낯선 개념들이 소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전체 실습을 하기 전의 시범 설교는 한 편의 가르침 그 자체였습니다. 시범 설교를 하신 분들은 이전에 다음 세대 설교 세미나를 수료한 선배들이었습니다. 시범 설교는 중심사상과 포인트를 근간으로 한 소리굽쇠 설교 방식에 대해 신뢰를 갖게 해주었습니다. 시범 설교 이후에 사역 단위별로 시범자들에게 질의응답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매우 유익했습니다.

또한 다음 세대 설교의 원리를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었습니다. 다음 세대의 특성에 맞추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교를 해야 할지 지도받았습니다. 다음 세대 설교의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했으며, 본문에 따라 어떻게 창의적 구성을 하는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주었습니다. 본문에서 중심사상을 뽑아내는 과정과 우리 공동체의 필요에 따라 포인트를 만드는 과정, 그리고 소리굽쇠들에 설교를 얹히는 일련의 시간들은 그 어디에서도 배울 수 없었던 집약적이고 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1992년부터 어린이 사역에 관심을 갖고 부족하나마 열심히 노력하고 버티오면서 뿌듯함과 외로움이 공존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이번 다음 세대 설교 세미나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 세미나로 인도하여주시고 믿음의 선배와 동역자를 발견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다음 세대를 세우는 말씀 사역자로 훈련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이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끌어주신 파이디온 선교회의 양승현, 고종율, 장주동, 김진현 목사님과 스테프들의 사랑스런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다음 세대 설교 세미나는 제게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 헌신한 동역자들을 만날 수 있게 해준 행복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열아홉 명의 세미나 동기들 한 명 한 명의 이름과 얼굴이 떠오릅니다. 함께할 수 있어 든든했습니다.

세미나를 시작하며 제 성경책 표지 안쪽에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나 도중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이 말을 마음에 새기고 늘 다음 세대를 세우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해봅니다.

도중원 목사

• 대구삼성교회 교육목사
• 대구교대 성서유니온 간사



생생한
선교지 이야기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께

지난 두 달간 이어졌던 사하라의 먼지바람이 이를 전 내린 비로 인해 조금 잠잠해졌습니다. 잔뜩 흐려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하늘이 한층 맑아져 구름이 보입니다.

지금까지 선교 사역을 하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고, 최근에는 여러 어려운 상황을 수시로 직면하면서 때마다 '왜', '무엇을', '어떻게' 라는 질문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제가 더 낮아지고 부서져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쏟아내듯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는 마치 절구 속에서 찢어지고 짓이겨지는 듯한 고통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것이 떡이나 푸푸(Foufou, 토*의 전통 음식)를 만드는 과정이라면 중간에 건져내지지 마시고, 완성될 때까지 계속되게 하소서. 그래서 유익한 양식을 만들어내어 하나님과 사람에게 기쁨이 되게 하소서!"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 제가 주님의 목적을 이루는 한 과정 속한 사람임을 다시 되새기고 힘 있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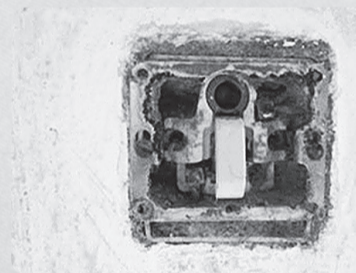
얼마 전 기독교 세계관으로 바르게 교육하는 교육자들을 세우고자 베냉 SIM에서 진행하는 3단계 교육에서 1단계를 교사인 톰페이와 함께 참석했습니다. 교사로서 많은 변화를 가져오는 훈련이었다고 간증하는 고백을 듣고 앞으로 좀 더 많은 교사가 참석하도록 도전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서도 같은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도록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부모와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한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각 훈련에 참석한 사람들의 보고와 간증 그리고 도전이 많은 이들에게 결단을 가져다주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리 개종자 가정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사흘간 진행된 캠프에 60여 명의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캠프를 더 오래하자고 말하는 아이들에게 내년을 기약하며 헤어졌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삶을 통해 나누었던 '하나님 자녀의 사명'이라는 캠프의 주제처럼,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기도했습니다. 내년에는 준비를 좀 더 일찍 시작하고 더 많은 참가자와 도우미들과 함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은혜의 현장으로 캠프가 사용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작년 말에 피트 선교사가 전도한 한 형제가 돈이 필요해 테러 단체에 의한 납치를 가장하여 경찰과 군인들이 동원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팀에 큰 상처와 우려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감옥에서 자기 행실을 후회하는 아*리 형제의 온전한 회개와 이로 인해 나 타날지 모를 부정적인 여파가 우리의 삶과 사역 그리고 토*의 전반적



인 선교 사역들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기도해주세요. 이로 인해 우리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은 나이지리아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이 와서 위기 상담을 해주셨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은 저의 첫 사역지였던 나이지리아의 디렉터를 지내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제게 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에 베냉 선교병원인 뱀베레케에서 30년 넘게 사역하던 마르싸 선교사가 암 발병을 알게 된 지 한 달 만에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11월 초에 있었던 토/베 선교사 수련회에서 우리와 함께했던 그녀의 삶을 기억하며 서로 위로하고 감사에 배를 드렸습니다.



최근 전기 기기들에서 전기가 자주 오르고, 전등도 자주 나가서 전기 점검이 필요하던 차에 형광등 스위치 하나가 흰개미들에게 점령당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기공사를 하면서 접지선을 깔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전기로 인한 염려가 생기지 않고 늘 안전하도록 기도해주시시오.

저의 연약함으로 인한 여러 시련을 홀로 직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때, 보이지는 않지만 기도해주는 동역자들의 기도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늘 기도로 함께 사역에 동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복과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집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 하시리로다”(시 55:22).

기도해주세요!

1. 소*대와 아징기리 마을에 어린이클럽과 어린이 잔치에 좀 더 많은 청년이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2. 아**트와 그의 동생 아**드의 안구 알레르기가 치료되고 더 아프지 않도록, 같은 질병으로 고통 받는 이 땅의 어린이들을 위해.
3. 연대적 성경 읽기와 공부를 통해 말씀의 비밀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과 체력적으로 강건하여 시작한 작업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4. 코**리 개종자 가정의 어린이 청소년 캠프가 내년에는 더 많은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현상이 되도록.
5. 감옥에서 복역 중인 아**리 형제가 온전히 회개하고, 그로 인한 부정적인 여파들이 삶과 사역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6. 라디오 복음 방송 후속 전도와 교회 개척을 위한 세미나가 사역을 열정적으로 감당할 현지인 사역자들이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7. 구전 문화에 익숙한 이들에게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도록. 구역에서 예수님까지, 예수 영화와 오디오로 지난 20년 가까이 준비한 메시지들이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8. 문맹퇴치 세미나가 배운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잘 활용도록.
9. 화* 형제가 전도한 사람들의 양육 사역, 교회 및 라디오 방송 사역 등 많은 사역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신실하고 겸손한 사역자가 되도록.
10. 비자 문제가 순직하게 해결되도록.
11. 마르싸 선교사처럼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들을 소중하게 잘 마무리하는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도록.

전미자 선교사
토* 코**리족 사역



전 세계 90여 개국에서 사용, 한국 교회 목회자와 성도가 인정한 말씀 사역 기관

디모데성경연구원

4,5,6월

이 준비한 세리나와 함께 하세요!

강사훈련 세미나

구약 · 신약의 파노라마

구약 · 신약의 파노라마는 모두 154개(구약 · 신약 각 77개)의 모션(움동)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움을 경험하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강의 사이사이에 재미있고 기억하기 쉬운 시청각 자료(구약 : 110여 개, 신약 : 90여 개)를 보여줌으로써 이해를 돕고 성경을 흥미진진하게 배우게 된다

날짜 구약 2014년 5월 12, 13일
신약 2014년 5월 19, 20일
시간 AM 9:30~PM 6:00
장소 푸른나무교회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905-2호 해풍빌딩 3층)
등록 25만 원(선착순 40명)

※ 중식 제공, 강사 패키지 포함
(학생용 교재, 인도자 지침서, 강의 실황 mp3, 강의 동영상, 강의용 PPT)
※ 구약의 파노라마 강사 교육 세미나는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세미나 등록을 하신 후 5만원을 선입금해야 세미나 등록이 완료됩니다.

함께 승리하는 리더

공동체가 하나의 목표를 향하여 전진하며 함께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 적용해야 할 인간 관계 신리의 법칙을 다룬다.
• 일시 2014년 4월 7일(월)
• 장소 목동 지구촌교회

참 믿음의 5가지 가치관

야고보서 4, 5장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요로운 삶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전해 줄 것이다.
• 일시 2014년 4월 14일(월)
• 장소 목동 지구촌교회

건강한 관계 형성을 위한 피플 퍼즐

행동 유형(DISC)을 알면 인간관계에서의 갈등이 사라진다! 실재적이어서 쉽게 배우고 적용할 수 있다.
• 일시 2014년 4월 21일(월)
• 장소 목동 지구촌교회

신약·구약의 파노라마 플러스

성경을 책별로 자세히 공부하는 과정으로 자료의 내용과 구성 및 활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 일시 2014년 4월 28일(월)
• 장소 목동 지구촌교회

신약·구약의 파노라마 플러스

성경을 책별로 자세히 공부하는 과정으로 자료의 내용과 구성 및 활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 일시 2014년 5월 26일(월)
• 장소 추후공지

선한 청지기의 삶 스투어드십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으로 자신의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이끄는 세미나이다.
• 일시 2014년 6월 2일(월)
• 장소 목동 지구촌교회

삶을 변화시키는 가르침의 7가지 법칙

자신도 잘 가르치고 남도 잘 가르치는 선생이 되고 싶은 모든 교사와 지도자에게 평생 기억될 길잡이가 되어 줄 것이다.
• 일시 2014년 6월 16일(월)
• 장소 목동 지구촌교회

로마서 12장 그리스도인

로마서 전체를 쉽고 명료하게 정리해 주며, 12장 통해 성숙한 제자의 모습을 분명하게 정리해 준다.
• 일시 2014년 6월 23일(월)
• 장소 목동 지구촌교회

- 강사 자격을 원하시는 경우 수강 후 강사 패키지(인도자 지침서, 강의 실황 mp3, PPT)를 별도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 강사는 해당 세미나의 업데이트 자료와 세미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디모데성경연구원 www.worldteach.co.kr 02)2652-09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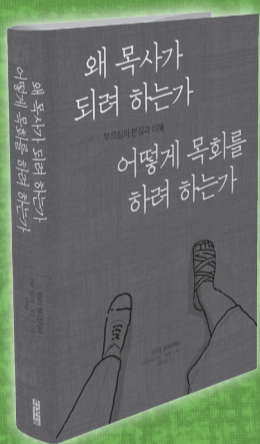
왜 목사가 되려 하는가

부르심의 본질과 이해

어떻게 목회를 하려 하는가

우리 시대 영적 스승,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저자 헨리 블랙커비,
뛰어난 상담심리학자 헨리 브란트가
목회자와 평신도의 관점에서 새로이 접근하는
목회자로서의 부르심, 그 본질과 이해.

목회라는 특수한 상황이 유발하는 탈진과 좌절,
남편과 아버지로서 감당해야 할 삶이 주는 압박,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역의 열매들은 목회자들을 지치게 한다.
열심히 달려왔으나 어느 순간 길을 잃은 목회자들에게,
이제 막 그 부르심에 응답한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이 책은 목회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산적한 사역의 문제들은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에 대해
분명한 하나님의 표준을 제시한다.



헨리 블랙커비 · 헨리 브란트
· 케리 스키너 지음
신국판 양장 | 347면 | 1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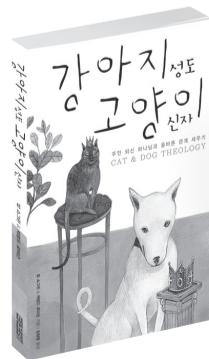
오늘도 응답 없는
기도를 드리는
그리스도인에게



밥 쇼그린 & 제럴드 로버슨 | 168쪽 | 11,000원

강아지성도 고양이신자의 기도

한국 교회에 고양이 신학의 위험성을
소개하여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강아지 성도 고양이 신자』의 기도 편



밥 쇼그린 & 제럴드 로버슨 | 304쪽 | 11,000원

강아지성도 고양이 신자

주인 되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맺기

선교안테나

주일

양영학, 한경신 선교사

MK: 성지, 성애, 성국

사역지: 홍콩 및 X국
사역: 서점 운영, X국 지역 책 보급

1. 성령님이 함께하셔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2. 늘 선교 사역에 감사가 넘치고 기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3. 성경학교의 안전과 졸업생들의 사역이 열매가 있도록.
4. 선교사 훈련원의 사역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5. 자녀들의 결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김종진, 이은숙 선교사

MK: 은혜, 은총

사역지: 태국
사역: 교회 협력 및 다음 세대 양육

1. 주님이 세우신 소수민족 교회가 든든히 서가도록.
2. 파송 교회와 협력 교회를 통하여 선교지가 든든히 서가도록.
3. 김 선교사 가정의 건강을 위하여(새로 발견된 이은숙 선교사 담석이 없어지도록).
4. 홀리시티 치앙마이와 프라오를 위하여.
5. 큰 딸 은혜와(대 2) 은총이(10학년)의 새학기 학업을 위하여.

월요일

이미경, 데일 선교사

MK: 룩, 조에

사역지: 탄자니아

1. 타베이 선교사의 건강과 준비하고 있는 세미나와 보내온 차를 받는 순조로운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2. 조셉과 하산의 학업에 은혜 주시도록.
3. 잭슨의 정직한 영의 회복과 공동체 안의 모든 청소년들을 위하여.
4. 새로 바뀌는 무함빌리와 오션로드 병원 담당자들이 우리 사역을 계속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5. 싱기다의 주술사들의 영향력 아래 있는 영혼들의 자유함과 구원의 역사가 새롭게 일어나도록.
6. 도도마 공동체의 포도밭 프로젝트가 잘 진행되도록.
7. 백삼조 후원자들이 많아져 더 많은 아이들이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안드레, 미스바 선교사

MK: 드보라, 아모스

사역지: 국내
사역: 국내 선교 자원 동원과 훈련

1. 주께서 공급하시는 지혜와 권능으로 선교사의 삶을 즐길 수 있도록.
2. 예비선교사 멘토 클럽에서 만나는 형제자매가 선교사적 삶을 살도록 잘 돕도록.
3. SUFAN(북아프리카 번역 프로젝트)에서 그동안 번역된 스무 권의 책들을 철저법에 맞게 수정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지고, 적절한 테스트 과정을 거치도록.
4. 가족과 양가 부모님, 형제들을 위하여

화요일

김용준, 이옥경 선교사

MK: 하람, 하진, 이레

사역지: 아르헨티나
사역: 교회 협력 및 다음 세대 양육

1. 장년 성경공부(매주 목)에 이어 청소년 성경공부(Adolescente)가 시작되는데, 이 모임이 활성화 되어 주일학교 사역으로 이어지도록.
2. 저희 부부의 영적 강건함,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그리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을 통해 선교사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아브라함, 사라 선교사

MK: 야곱, 요셉, 한나

사역지: S국
사역: 교회 개척 및 교육 사업

1. 악한 거짓 영에 사로잡혀 무지하게 살아가는 약 15억의 불쌍한 무슬림 영혼들이 주께 돌아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거듭나도록.
2. 고난과 핍박이 시작된 이슬람권과 아랍권 안에 사역하는 선교사들과 이름 모를 고난받는 현지 사역자들과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주께서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주시도록.
3. 이 시대 무슬림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세운 사역자들이 주께서 각자에게 맡기신 파수꾼의 사명을 힘들지만 묵묵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수요일

이영민, 김명숙 선교사

MK: 문희, 용호

사역지: 국내
사역: 본부 사역

1. 김명숙 선교사의 건강과 신앙의 회복을 주시도록.
 -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뇌경색, 공황의 기능 저하, 수술한 눈이 회복 되도록.
 - 가장 중요한 당과 고혈압을 조절할 수 있도록.
2. 아내를 옆에서 제대로 잘 간호하고 돕고 섬길 수 있도록, 건강과 마음을 잘 다스리고 더 주님께 집중하도록.

민윤기, 안은자 선교사

MK: 하영, 하람

사역지: 태국
사역: 신학교 교육, 어린이 전도, 훈련

1. 저희 가족이 주님을 더욱 잘 알아가고,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2. 아프리카 교회가 열심히 전도하고,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 되도록.

목요일

김혜정 선교사

사역지: C국

1. 매주 토요일 A교회에서 15명이 교사 훈련을 받는 데, 이 과정을 통해 주일학교 교사들이 이 사역에 더욱 헌신되고 충성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2. 감사 교육을 통해 각 주일학교 현장과 미래를 바라보며 사역을 통해 헌신된 주일 학교 전임 사역자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3. 겸손과 은유를 배우게 하시고 사랑으로 용납하여 헌신한 사역자들과 하나될 수 있도록.
4. 지혜롭게 건강을 잘 유지하도록.
5.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동생 가족들이 주님을 영접하도록.

이태하, 김혜한 선교사

MK: 은혜, 은선

사역지: 캐나다
사역: 교회 협력 및 다음 세대 양육

1. 예배자로 먼저 바로 서도록.
2. 사역 가운데 주님의 기쁨부심을 경험하도록.
3. 은혜, 은선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 주님 이심을 알게 되도록.
4. 기도와 재정의 평생 동역자가 일어나도록.

금요일

박종덕, 신유현 선교사

MK: 세하, 주하

사역지: 인도네시아

1. 인도네시아 780여 종족 중 미전도 종족인 220여 종족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2. 깔리만탄에서 함께 동역하는 12명의 사역자들과 함께 멋진 사역 팀을 이루어 자립 교회들을 세워 나가며, 전도처 개척 및 교회 개척 사역, 성도 제자훈련 사역, 아이들 청소년 사역을 진행할 수 있도록.
3. 나하야(Nahaya) 예배당 건축이 시작되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공사 마무리까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4. 바바르(Babar)지역, 투마방(Tumabang)지역, 팍마얌(Pakmayam), 따렝(Tereng), 빠위스(Pawis), 마눌(Maur) 지역에 교회, 기도처 그리고 유치원이 세워지도록.
5. 홈스쿨을 통해 가르치는 세하, 주하 두 아이가 믿음 안에서 바르게 자라도록.
6. 함께 동역하게 될 권태운 선교사 가정의 건강과 언어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전미자 선교사

사역지: 토*

사역: 코**리 족 사역

1. 소*데와 아징기리 마을에 어린이클럽과 어린이 잔치에 좀 더 많은 청년이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2. 아**트와 그의 동생 아**드의 안구 알레르기가 치료되고 더 아프지 않도록, 같은 질병으로 고통 받는 이 땅의 어린이들을 위해.
3. 연대적 성경 읽기와 공부를 통해 말씀의 비밀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과 체력적으로 강건하여 시작한 작업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4. 구전 문화에 익숙한 이들에게 복음이 더 잘 전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도록. 구약에서 예수님까지, 예수 영화와 오디오로 지난 20년 가까이 준비한 메시지들이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5. 화* 형제가 전도한 사람들의 양육 사역, 교회 및 라디오 방송 사역 등 많은 사역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신실하고 겸손한 사역자가 되도록.
6. 비자 문제가 순조롭게 해결되도록.

토요일

정바나바, 이에스터 선교사

MK: 예은, 예광, 예희

사역지: 소아시아(이슬람권)
사역: 신학교 교육, 어린이 훈련, 전도

1. 갈라디아 사랑교회의 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2. 성경 통신자들을 잘 돌보고, 빌립보 훈련원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3. 함께 교회를 섬기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동역자를 보내주시도록.

해외 다음 세대를 위한 후원 헌금

2013년 12월 1일~2014년 2월 28일

* 괄호 안의 숫자는 구좌수입니다(가나다 순). 한구좌: 5,000원

후원하신 분 강성일(6), 강숙희(12), 강영욱(1), 고종율(100), 권민혁(4), 김대만(4), 김민기(12), 김상기(4), 김상신(40), 김영식(60), 김영민(30), 김용원(20), 김정(31), 김종철(10), 김주현(6), 김지형(6), 김진현(11), 김치현(40), 김진수(7), 김혜인(4), 김효영(15), 노명숙(2), 노신애(3), 도은아(2), 박보배(2), 박선영(16), 박성덕(2), 박소연(9), 박영란(18), 박종인(3), 방승미(4), 서유정(2), 서정인(400), 송유진(3), 순현주(7), 심라영(16), 양이삭(40), 오세영(1), 오은지(1), 유상실(30), 윤영신(12), 이미란(1), 이상견(2), 이성현/임성주(12), 이성환(1), 이정남(18), 이주안(2), 이하영(6), 이한나(2), 이현우(3), 임미옥(2), 장순배(10), 장주동(24), 전해란(42), 정은경(6), 정진영(2), 조만재(18), 조익득(4), 주성희(2), 진양숙(32), 최광희/박효주(34), 최수정(4), 최은진(정혜원)(20), 최형(5), 하희옥(58), 한은주(2)

후원 교회 과천중앙교회(120), 남광교회(60), 남서울은혜교회(600), 동백사랑교회(60), 대영교회(60), 동원교회(60), 사랑의교회(20), 새로나교회(60), 서현교회(60), 성광교회(20), 세대로교회(180), 송월교회(20), 수원원천침례교회(40), 수지수정교회(60), 영화교회(120), 예사랑교회(18), 주은혜교회(30), 중만교회(12), 호산나교회(60)

후원 단체 ㈜에스코컨설팅(90), 우물네트웍(100), CMT 출판인가(24)

- 후원 헌금은 다음 세대를 위한 해외 선교 사역에 사용됩니다.
- 문의: 070-4099-7710

후원 안내

온라인으로 후원금 보내기:

처음 후원하시는 분은 전화로 연락처를 꼭 말씀해주시고.

- 국민은행 767437-01-009907 파이디온선교회
- 신한은행 140-009-951346 파이디온선교회
- 우리은행 1005-402-245623 파이디온선교회
- 농협 301-0128-1734-11 파이디온선교회

자동 이체로 후원금 보내기:

매번 은행에 가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

거래 은행 창구에서 은행 간 자동 이체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짧게는 6개월부터 길게는 3년까지 예정하실 수 있습니다(타 은행일 경우 300원의 수수료 부과).



파이디온 소개

파이디온이란 말은 헬라어로 '어린아이'라는 뜻입니다. 파이디온선교회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막 10:14)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좇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세상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세대로 세우기 위해 다음의 다섯 가지 주요 사역을 펴고 있습니다.

- ① 세계의 다음 세대를 세웁니다.
- ② 다음 세대를 위해 사역하는 일꾼을 세웁니다.
- ③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만나도록 인도합니다.
- ④ 다음 세대를 세울 도구를 빚습니다(도서출판 디모데).
- ⑤ 다음 세대의 문화 속에 영원한 진리를 담습니다.

파이디온 뉴스

1. '크리스천 티칭 일일 세미나'가 지난 1월에 전국 5개 도시(익산, 구미, 수원, 울산, 서울)에서 진행되었습니다.
2. '전도사 학교'가 지난 2월 3일 상도제일교회에서 전국 각지에서 모인 106명의 사역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마무리되었습니다.
3. '꿈마루 세미나'가 작년 12월에 이어 두 번째로 서울, 대전, 광주에서 진행되었습니다.
4. '다음 세대 설교 세미나'가 지난 2월 17일부터 20일까지 3박 4일간 여주 회복의 집에서 진행되었습니다.
5. 'CEE 강사훈련 세미나'가 2월 24-25일, 27-28일 주은혜교회에서 진행되었습니다.
6. 학위 수여
파이디온 어린이 사역 강사로 섬기는 방승미 전도사가 총신대학교에서 박사 학위(Ph. D, 유아교육 전공)를, 방신애 전도사가 장신대학교에서, 최광희 목사가 총신대학교에서 신학 석사(Th. M) 학위를 받았습니다.
7. 결혼
문화사역 팀에서 찬양 강사로 동역하는 김경미 선생님이 지난 2월 8일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4월 26일에는 김영희 선생님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8. 사임 및 변경
대외협력 팀장으로 사역했던 최광희 목사가 대학원 박사 학위 과정을 위해 파이디온선교회를 사임하였습니다. 김대만 목사가 대외협력 팀장을 맡아 사역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9. 동역
김송은 간사가 VBS 팀에서 동역하게 되었습니다.

파이디온 기도 제목

기획 팀 및 사역 본부

1. 파이디온선교회 사역의 장·단기 전략이 수립되고 사역의 지경이 더 확장되도록.
2. 각 팀이 협력하여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를 섬기는 사역에 열매가 더하도록.

VBS 팀

1. 2014 여름 성경학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라는 주제처럼 어린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도록.
2. 여름 성경학교 교재 제작과 과정, 강습회 준비(장소 섭외, 홍보, 강사 훈련 등)에 지혜를 주셔서 교회와 선생님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3. 여름 강습회 일정과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청소년사역 팀

1. 출간되는 2014년 여름 교재를 통하여 청소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도록.
2. 강의를 준비하고 동역하는 청소년 사역 강사들의 사역 현장과 가정에 복 주시기를.
3. 진행하고 계획하는 단위 세미나들을 통해 청소년 사역자들을 연결하고 세워갈 수 있도록.

문화사역 팀

1. 2014년 여름 성경학교 음반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임을 고백하고 찬양하게 하는 귀한 도구가 되도록.
2.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강사들이 지혜와 깊은 영성으로 훈련되도록.
3. 찬양 인도자를 섬길 하반기 사역이 잘 계획되도록.

사역자훈련 팀

1. 바나나 농장과 목요교사 세미나, 신대원 지부 모임이 활기차게 시작하여 도전과 감사, 기쁨의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2. 각 세미나에 세워진 강사들이 먼저 은혜를 경험하여 수강하시는 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3. 2014년에 개편될 바나나 농장 교육디렉터 스쿨과 전도사학교 과정이 이 시대 사역자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과정으로 개편되고 이를 위해 동역자를 보내주시도록.

대외협력 팀

1. 대외협력 팀 사역을 맡게 된 김대만 목사가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2. 대구지역 총무 강병호 목사(이한나 전도사) 가정의 딸 하엘이를 치유해주시고(희귀난치병 낭성섬유증), 하엘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해지도록.
3. 지역을 섬기는 지역 지부의 사역자들이 힘 있게 세워질 수 있도록. 새로 시작된 김포지역 지부 사역의 지경이 확장되도록.

연구개발 팀

1. 교재 개발을 위한 준비 작업 과정을 하나님의 지혜로 감당하도록.
2. 이 사역에 필요한 인재들을 보내주시도록.

구독 안내

〈비전트리〉를 구독하기 원하신다면

파이디온 홈페이지에서 구독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www.paidion.org에 로그인 후, 회보 신청란에 e-mail 혹은 우편 발송 선택

회보 후원금으로 파이디온 사역에 동참하여주십시오.

더욱 많은 사람들이 회보를 접할 수 있고 다음 세대의 가슴에 꿈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1년에 10,000원_ 회보 후원금은 회보 제작, 발송비에 사용됩니다.

신한은행 140-009-951346/ 파이디온선교회

* 문의: 070-4099-7710